

## 제107회기 「총회세례교인헌금 실시의 날」 설교문

■ 본문 : 사도행전 3:1-10

■ 제목 : 거룩한 예수님 운동, 샬롬·부흥 운동을 함께 일으킵시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 주신 사명과 목적을 생각하며, 전국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날입니다. 주일예배로 함께 모인 총회산하 161개 노회, 11,262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샬롬·부흥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장로교회 총회가 설립된 지 111주년, 우리 총회가 설립된 지는 107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만 삼 년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마크 놀 교수(Mark Noll, 1946~ )는 자신의 저서인 『터닝 포인트』에서 기독교역사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열 두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1517년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마틴 루터를 필두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은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교서를 통해 이 거룩한 운동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루터를 ‘숲속의 야생멧돼지’라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의 운동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운동을 하는 공동체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증거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영적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사 시대 같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삿 21:25). 종말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떤 거룩한 운동을 일으켜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거지 앓은뱅이를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

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공의(미쉬파트)’와 ‘사랑(헤세드)’입니다. 미쉬파트의 뜻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헤세드)의 뜻은 사랑스럽고 친절할 행위를 말합니다. 헤세드와 미쉬파트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shalom’이라 합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는 이것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shalom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평지교훈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 가난과 주림은 조건과 자격뿐 아니라 당시 현실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운동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 운동입니다.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Aristeides, AD 125)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겸손하게 삽니다. 그들은 거짓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고아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나그네를 보면 집에 거하게 하며 마치 자기 형제인 것처럼 그와 함께 즐깁니다. 그들 중 누군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서 투옥되거나 압제 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도울 여력이 없으면 그들은 돕기 위한 금식기도회를 2~3일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운동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 운동이지만 예수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받는 거지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운동으로 이 시대의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줄리어스 시저(Gaius Julius Caesar)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 시대의 부자와 권력을 비호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먼저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 운동을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운동을 합시다. 가난과 소외감으로 분노와 저주를 내뿜는 이 세대의 아픔을 예수님 마음 운동으로 녹여 일으켜 세웁시다.

### **둘째, ‘예수님의 이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얏은뱅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 은과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물질이란 가치를 위해 진력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속적 가치를 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은과 금이란 세속적 가치보다 예수의 이름이란 진리의 가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권세나 능력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 정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 경제를 통해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기업인들, 마음의 해방을 주장하는 종교인이나 철학자들도 결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복음서 89장 중 25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수난주간에 대한 기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십자가의 도를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 곧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30번이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먼저’라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및 본질,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해 줍니다. 그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는 강력한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걸으라’는 원어는 ‘페리페테이’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너는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름 운동은 강력한 성령 운동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 흥미로운 예화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재학 중이었던 김익두 전도사님의 사건입니다. 그는 꺾패였다가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전도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사도행전 3장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평양에 있는 걸인을 찾아 시도를 했습니다. 걸인의 팔을 당기고 설편했지만 팔만 빠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 이름 운동으로 능력을 받으시라.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오늘 죄악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대의 인생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시다.

### **셋째, ‘예수님 증인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앓은뱅이 걸인은 뛰어 서서 걸으며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심, 즉 예수님 운동을 성령 운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 되었습니

다.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님 증인 운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칼빈주의가 배타적이며 교리적 교회 운동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예수님 증인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얼핏 보면 칼빈주의의 모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칼빈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민중 운동은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게 함으로써 참담한 피의 숙청을 되풀이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수님 증인 운동을 통해 이 땅에서 거지 앓은뱅이와 같이 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육적인 거지 앓은뱅이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 앓은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영적 거지 앓은뱅이는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증인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조나단 차오(Chao, Jonathan)라는 중국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중국 지하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커리큘럼 중에는 공안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증인 운동의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미국 리디머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팀 켈러 목사(Tim Keller)는 목회의 원리를 복음 축, 도시전략 축, 운동 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 앞에서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예수 운동을 통한 살롬·부흥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휴전상태로 하나의 민족이 둘로 분단된 채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온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통한 대한민국의 중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총회만 해도 2년 새 4,500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25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심령의 부흥과 복음전도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고물가 문제 외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기후환경 재난 및 에너지 문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문제,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중국·일본·미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외교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는 성경적인 대답과 대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총회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정책을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3년 세례교인헌금 실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한국교회가 거룩한 예수님 운동으로 일어납시다. 어둠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아멘!

2023. 1. 1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장 권순웅 목사